

### 3: 일본의 컬렉터 문화에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술을 컬렉션한다는 행위가 단순한 물질적 소유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방의 대기업 회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단을 운영하고 미술관까지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매우 성공한 컬렉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Art Basel 이나 전후 세계 미술사에 큰 영향을 준 일본의 '구타이(Gutai)'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 아트씬이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은다”는 의미의 수집 문화는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ART 마켓에서 컬렉션이란 단순히 작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품이 세계 미술사의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는지, 어떤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갱신하는지까지 함께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즉, 컬렉터 자신이 세계 문화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세계의 흐름과 비평성, 역사 인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컬렉션은 결국 닫힌 지역성 안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저는 일본에는 컬렉터는 존재하지만, 아직 ‘세계 시장의 플레이어’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어란 단순히 비싼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미술사와 시장, 비평, 제도와 연결되면서 스스로 가치 형성에 참여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일본에는 ‘소유’는 있지만, 아직 ‘연결’이 부족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일본 아트 시장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